

윤석민 '살아있네'



KIA 윤석민이 10일 삼성과의 시범경기가 한파로 취소된 뒤 포항구장에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불펜피칭 42개 공 던지며 컨디션 점검 '합격점'

"지난해 밸런스 안맞아 마음 고생...친정 돌아와 편해"

'호랑이 군단'의 돌아온 에이스 윤석민이 10일 포항구장에서 불펜 피칭을 했다. 이날 삼성과의 시범경기가 한파로 취소됐지만 KIA 윤석민은 캐치볼에 이어 불펜에서 42개의 공을 던지며 친정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공을 던진 본인도 모두 만족스러웠던 피칭이었다. 빅리그 진입을 노리며 일찍 시즌을 준비한만큼 몸 상태는 좋다. 앞으로의 관건은 '실전감각'이다.

마운드에서 예전의 감을 찾는 게 가장 큰 숙제지만 외롭고 먼 길을 돌아온 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 전망은 밝다. 두 고참의 이야기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 8일 윤석민은 함평 챔피언스 필드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빅리거 김병현과 재회했다. 타이거즈 동료로는 처음 만난 이 자리에서 선배 김병현은 "잘해보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이제는 마음이 편하겠구나"며 아빠 미소를 보였다.

빅리그에서 도전의 삶을 보냈던 김병현은 누구보다 타구 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말과 마음이 통하는 이들과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잘 알고 있기에 격려를 보낸 것이다.

야구를 놓지 않기 위해 일본 독립리그에서도 뛰었던 최고참 최영필도 한국의 시스템이 윤석민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최영필은 "일본에서 야구를 할 때 라쿠텐에서 뛰던 김병현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다. 이제야 진짜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다. 우리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말긴다. 또 하체의 밸런스나 힘을 강조하는 우리와 다르게 상체로 공을 때리는 방식 등 차이가 있다"며 "(김)병현이 아마 투수들이 바로 미국 진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런 부분이다. 자신의 야구와 품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새로 야구를 하는 게 쉽지 않다. 프로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선수들이 오히려 우리 리그에 진출해서 야구를 배워가기도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민은 마운드에서 길을 잃으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윤석민은 2014시즌이 끝난 후 "미국

스타일이 선수들에게 맞는 편이고 코칭스태프가 나에게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보지 못했다 때문에 조언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밸런스나 폼 때문에 힘들었는데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고, 생각처럼 안 됐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자꾸 폼을 수정하게 됐고 시즌 내내 그런 패턴이 계속됐다. 발버둥은 쳤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제는 자신을 잘 아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민의 마음은 한결 편하다. 이날 윤석민의 불펜 피칭을 유심히 지켜본 이대진 투수 코치는 윤석민이 믿고 따르는 각별한 선배이자 스승이다. 양현종·심동섭 등 스스로 없던 후배도 있다. 익숙한 곳에서의 편안함도 큰 자산이다.

윤석민이 마음 든든한 친정에서 만족스럽게 불펜피칭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2015시즌 준비에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전 시범경기 '한파'로 취소

전국에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프로야구 시범경기 5경기가 모두 취소됐다.

10일 목동에서 예정됐던 넥센과 두산의 경기를 시작으로 한화-SK(대전), 삼성-KIA(포항), 롯데-LG(사직), NC-kt(마산) 경기가 차례로 한파 취소됐다.

꽃샘 추위에 시범 경기가 취소된 것은 지난 2011년 3월25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두산전 이후 4년 만이다.

프로야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처럼 날씨에 따른 취소 사례들이 나오곤 한다.

지난 2007년 4월1일에는 황사가 시범경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전국이 황사 먼지로 뒤덮이면서 시범경기 전경기가 취소됐다.

눈과 바람이 심술을 부리기도 했다.

2010년 4월14일 KIA와 두산과의 경기를 앞둔 무등경기장에 찾아온 눈이 흘렀다. 양팀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눈극경을 하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됐고, 이날 경기는 정규시즌 사상 처음으로 강설(한파)취소가 됐다.

지난해에는 태풍이 몰고온 바람에 KIA와 삼성의 경기가 취소됐다. 8월2일 토요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된 뒤 밤새 태풍 '나크리'가 지나가면서 챔피언스필드 지붕 패널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3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그라운드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 경기장 보수 공사 여파 등으로 4일로 미뤄졌던 월요일 경기도 치르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불모지로 간 풍운아

최향남, 오스트리아 세미프로리그 다이빙 덕스와 계약

'풍운아' 최향남(44)이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지난해 팀을 해체한 원더스 관계자는 10일 "최향남이 오스트리아 세미프로리그 다이빙 덕스와 계약했다"고 전했다.

최향남과 향건주는 3월 25일께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다이빙 덕스는 3월 30일(한국시간) 체코, 크로아티아 세미프로리그 친선경기를 가진 후 최향남 환영 파티를 연다.

오스트리아 북동부 비너 노이슈타트를 연고로 한 다이빙 덕스는 세미프로 1부리그에 속한 팀이다.

고교 시절까지 선수로 뛰고, 지난해 롯데 옥스포프리그 유망 투수를 했던 하승준(32)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총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1부리그에는 6개 팀이 있으며 팀당 정규시즌 20경기를 치른다. 6개팀 중 1-2위는 유럽 챔피언을 가리는 유로파리그에 출전한다.

오스트리아 세미프로리그 경기력은 한국 고교야구 1~2학년 수준이지만 최향

남은 '던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오스트리아행을 택했다.

한국 1군, 미국 마이너리그, 일본 독립리그에 이름과 기록을 새긴 최향남이 오스트리아 세미프로에도 발자취를 남긴다.

/연합뉴스



ML 첫 3루 출전 강정호

미네소타전 6회 교체 출전... "마음 편했다" 자신감

타트윈스와 시범경기 5회말 대타로 출전해 3루 수비까지 소화했다. 앞선 3차례 시범경기에서 홈런과 2루타 하나씩을 선보이며 장타력을 입증했던 강정호에게 이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3루 수비였다.

MLB닷컴도 이날 2타수 무안타에 그친 타격 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강정호의 수비에 대해서만 논했다. 5회말 투수 레다메스 리즈 타석에서 대타로 등장한 강정호는 6회초부터 조시 해리슨을 대신해 핫코너(3루)를 맡았다.

강정호는 7회초 첫 타자 트레버 플루프의 땅볼 타구를 잡아 안전하게 1루로 송

구하며 3루수 첫 수비를 무난하게 마쳤다. 8회 무사 2루에서는 2루와 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린 미네소타 애런 히스를 포수 엘리야스 디아즈, 유격수 페드로 플로리노와 호흡을 맞춰 태그아웃 시키는 협살도 했다.

MLB닷컴은 "피츠버그는 입단 후 처음 3루수로 나선 강정호를 주목했고, 강정호는 충분히 피츠버그를 기쁘게 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강정호를 한국에서 자주 서지 않은 3루수, 2루수 포지션에 기용하려는 피츠버그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